



[지속가능] 美, 우유병 재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 위한 캠페인 전개

- 우유병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분리배출 방법 안내



미국에서 우유병 분리배출 및 재활용에 대한 인식과 관심 제고를 위한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최근 낙농업계가 실시한 소비자 인식 연구에서 캘리포니아주 소비자의 70%가 재활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우유병은 재활용이 어렵다고 응답한데 이어 32%의 응답자는 실제로 우유병이 재활용되는 지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캘리포니아주 농식품부 산하 우유자문위원회(CMAB)는 ‘갓밀크’ 캠페인을 선도해온 MilkPEP(Milk Processor Education Program)과 협력해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인 식물성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을 사용한 우유병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플라스틱 우유병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바로 잡기 위해 ‘Recycle the Jug’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에, 우유병을 비운 뒤 뚜껑을 분리한 후 재활용 분리수거함에 배출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우유병의 재활용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출처 : wctv.tv, 10월 7일자 >

[시장동향] 獨 최대 낙농협동조합, 식물성 대체식품 사업 진출

- 식물성 치즈 개발 및 귀리와 쌀을 이용한 디저트 출시 예정



식물성 대체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발맞춰, 독일의 최대 낙농협동조합인 DMK Group도 식물성 대체식품 사업에 진출할 계획임을 밝혔다.

금년 초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식물성 대체식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독일에서도 40개 이상의 브랜드가 생겨나는 등 식물성 치즈는 물론 대체식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최근 해당 조합은 세계 최대 식품박람회인 아누가(ANUGA)를 통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식물성 대체식품 소비가 늘어나는 트렌드에 맞춰 식물성 치즈를 개발해 내년 봄 출시할 계획임을 발표하는데 이어 계열사에서도 귀리와 쌀을 이용한 식물성 디저트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출처 : vegconomist.com, 10월 11일자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